

룻기 3장 1-5절 말씀

- 01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
내 딸아
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
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
- 02 내가 함께 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
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랴
- 03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
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
- 04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
들어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랴
그가 너의 할일을 내게 고하리라
- 05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
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

룻기 3장 6-7절 말씀

- 06 ○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
시어머니의 명대로 다 하니라
- 07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적가리 곁에 눕는지라
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